

사설

조계종 3대사업 어디로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총회가 주요 사찰의 중무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지않은 문제와 과제가 표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불적 시설의 확장 등 외형적인 가람불사에 밀려 포교와 교육에 관한 불사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큰 화두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중무감사는 내년 사업설계를 위한 좌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포교, 도제 양성, 역경이라는 종단의 3대 사업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3대사업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운명 속에 놓여있는 것이다. 도제양성과 역경사업을 통해 포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체계, 포교체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서 종단들이 갈수록 갈수록 인재양성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증흥은 요원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종단의 사업목표를 새롭게 인식하고, 사부대중이 같이 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아울러 차제에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포교·도제양성·역경이라는 종단의 기본 3대사업에 걸맞은 예산이 배정되고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업사회이고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불사를 이루는 데는 많은 물질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강원, 선원, 불교대학 등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과 포교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원·포교원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고,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 전은 이미 종단개혁과정에 논의되었고, 개혁중단의 목표로 설정된 바 있다. 종헌 중립성으로도 총무원과 나란히 높은 위상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조직, 사업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뿐만 아니라 활동영역이 대단히 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종단의 중앙행정기관과 본말사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재 양성과 포교불사를 과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본말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현 실정적인 생존경쟁의 아귀다툼 속에서 병들고 아파하는 중생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사찰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포교와 교육사업을 펴 나가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포교·교육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종책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우름에 등불을 밝히려 한다. 산사나 도시의 거리가마다 불교교양 도서관이 세워지고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매마르고 지친 중생들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종중지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것을 갈구하는 지식인들에게 자비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깝다.

이런 주요 사찰의 중무행정감사를 계기로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릴 예산총회에서 포교와 교육분야의 중책이 종단 사업의 중심부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재, 교육원·포교원의 기능이

열린마당

2달여동안 술한 회제를 뿌리며 지난 22일 막을 내린 MBC 드라마 '애인'은 그동안 달라진 우리사회 기혼 남녀의 성운리가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드라마 '애인'의 상업적 성공은 무엇보다도 기성층의 일부는 안정된 가정과 애인을 동시에 갖고 싶어한다는 잠재된 심리를 담아냈기 때문이라는 사회

전반의 분석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령 1백호를 맞아 드라마 '애인'을 통해본 '기혼불자 성운리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23일 서울 경기 인천지역 불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국불교신문회원 부설 한국불교리서치에 의뢰 전화 조사를 했다.

현대불교 100호 기념 한국불교리서치 의뢰조사

기혼불자 108명에 듣는 '성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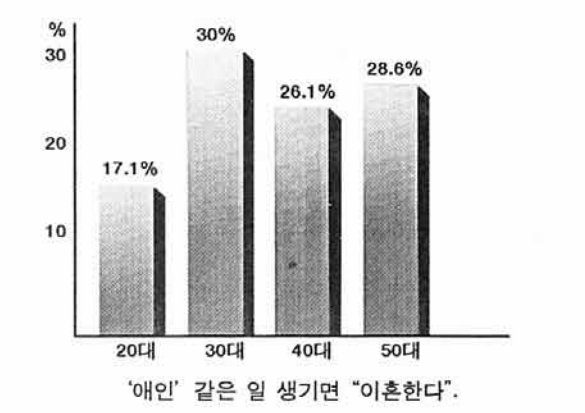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8명 불자들이 과반수는 기혼남녀의 이성교제를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또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남성이 28.6%로 여성의 21.2%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는 30대는 30.0%가 '불륜이므로 살 수 없다'고 답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반응했으며 50대(28.6%), 40대(26.1%), 20대(17.1%) 순으로 나타

이번 조사에는 66명(61.1%)이 여성 응답자이며 남성은 42명(38.9%)이 응답했다. 또 응답자중 20대가 41명(38.0%) 30대가 30명(27.8%) 40대가 23명(21.3%) 50대가 14명(13.0%)이다.

(편집자 주)

- 1) 만약 불자님의 가정에서 드라마 '애인'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
 - ① 정신적 사랑이라도 불륜이므로 더이상 부부의 연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불륜이지만 가정파탄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③ 일시적인 실수일 수도 있으나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 ④ 원인을 찾아 대화로 원만한 해결 모색
- 2) 왜 드라마 '애인'과 같은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
 - ① 사회 전체의 도덕성 실추
 - ②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사회의 성숙
- 3) 현대사회의 변화는 부부성모란
 - ④ 개인의 선천적 바람기 또는 호기심
- 3) 유부남·유부녀의 외도 또는 사랑이아가 드라마로 공론화 되는 것에 대한 불자님의 견해는? ()
 - ① TV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사의 지나친 상업주의 이므로 시정해야 한다
 - ② 대중문화의 저급화를 부추기지만 대다수 시청자가 원하므로 어쩔 수 없다
 - ③ 사회변화의 한 현상이라고 본다
 - ④ 기존자의 이성교제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 ① 가능하다
 - ②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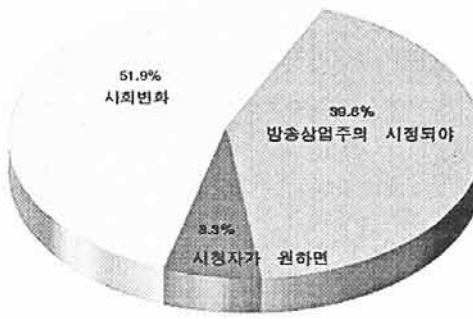


이성교제 인정 '여성이 더 개방적'

"정신적 외도도 이혼" 男28.6%·女21.2% "불륜소재 드라마 사회현상이다" 51.9%

(75.9%)는 의견이 이혼하겠다는 의견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일시적인 외도라면 이해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가정파탄이 안가도록 하겠다' 16.7%,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 23.1%, '원인 찾아 해결해보겠다' 36.1% 등 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불자들이 배우자의 일시적인 외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의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9%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44.4%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기혼남녀의 58.5%, 30대 50.0%, 40대 60.9%, 50대 50.0%가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9.1%가 이성교제가 가능하다고 답해 50.0%가 가능하다고 답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여성이 기혼자의 이성교제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가정에서 드라마 '애인' 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신적 사랑이라도 불륜이므로 부부의 연을 지속할 수 없다'는 대답이 전체 중 24.1%로 나타났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불륜이므로 살 수 없다'는 의견은

유부남 유부녀의 외도 또는 사랑이아가 드라마로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의 한 현상이라는 대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방종상업주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39.6%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 성운리 및 결혼관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찬 자비의 전화 회장 정덕 TEL(02)737-7378

전문가 의견

정신과전문의 이근후박사

부부관계란 각기 다른 가족문화에서 성장한 성인이 결혼이란 의식을 통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생활이 허용되는 관계를 맺는다. 물론 성관계 이외의 친밀감과 신뢰등 많은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우선하는 관계를 요구하고 요구받지만 그 가운데 성관계만은 누구에게도 허용해서는 안되는 철저한 배타성을 지닌다. 강릉은 성관계 여부의 증거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근자에 외치는 부부간 이외의 대상과 친밀감이 부부

"항상 부부대화 통해 신뢰·친밀감 높여야"

보다도 더 밀접할 때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마음속엔 '애인' 류의 이성친구와 사귀고 싶거나 사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속눈이 다하도록 음행하지 말라' 이때의 음행은 사음으로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에게 음행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어찌 부처님의 가르침이 퇴색되었는가. 부부는 이런 틀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서로의 노력이 없이 간통이 나쁘다(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타탄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폐이다.



◇드라마 '애인'의 한 장면.

현대만평 박구환

미고 싶은데...

화엄사 서오층석탑 부처님사리 친견회향대법회 및 10만등불사 점등식

초대의 말씀

삼가 맑은 차 한잔을 올리며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화엄사 서오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부처님 진신사리 22과와 신라시대 경전을 사경한 지류몽치등 16종 72점의 국보급 성보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1년여 동안 불사리에 대한 예경과 찬탄을 위하여 전 불자의 신심으로 친견법회와 사리봉안을 위한 10만등 불사를 봉행해 왔습니다.

법등은 어둠과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을 밝혀 참된 불법을 보게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길은 단풍으로 물든 계절에 찬불의 문화축전과 10만법등의 촛불을 밝히는 거룩한 회향의 자리를 마련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께서는 불연의 공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6년 10월
지리산 화엄사
주지 종열 합장

부처님 사리친견회향 대법회 및 10만법등 점등식

제1부 : 사리친견회향 대법회
1996년 11월 5일 오후 1시~2시
본 법회는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스님 그리고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허경만(전남도지사)·양성철(구례국회의원)님과 각급기관장 신행정차장 및 사부대중을 모시고 사리친견회향 회향식을 봉행합니다.

제2부 : 찬불문화행사
1996년 11월 5일 오후 2시~4시
이 문화축전은 정종준(KBS밸리트)님의 사회로 김영재(전남대교수)·단속선(국립창극단 지도위원)·진유림(무형문화재 승무27호 이수자)·차금순(남도국악학원장)·한정하님의 국악인 20여분을 모시고 남도민요/해금합주/승무/판소리/살풀이 등을 공연합니다.

제3부 : 10만법등 점등식
1996년 11월 5일 오후 5시~9시
이 점등행사는 점등의식과 화엄불교합창단의 합창과 담들이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리친견 및 봉안을 위하여 모두의 신심과 정성이 담긴 10만법등의 촛불을 밝혀 지리산의 가을 단풍과 함께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이루고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0664)782-7600 전송(0664)782-7601